

대행 스님

마음 한군데다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남) 제가 선원에 나오기 전까지는 술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이 일체 끊어지고 '무조건 선원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데 선원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고요해져서 눈물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현재 가고 있는 마음의 점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무작정 나왔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점검을 뭘로 할까요? 고요한 마음이니깐 된다, 안팎이 없는 고요한 마음이 되셔야 되겠죠? 집에 있으나 변소엘 가나 여기 절에를 오나, 하여튼 당신이 있는 곳곳마다 부처는 계시니깐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는 있는 겁니다. 당신이 없다면 모두가 무효죠. 그러니까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에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저 가난하면 열심히 지극하게 벌이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이 공부 하는 데는 적격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뭐가 탓이 될 게 있습니까? 부닥침이 뭐가 있고? 그러니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죠. 그거를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고 따지게 된다면 이 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떨어지기 전에 모든 도리를 알아서 증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론으로만 알고 말로만 알고, 그저 강백으로서 설법을 여여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내 몸 떨어지기 전에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고 말 떨어지면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 공부는 가난하다고 해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못나서 못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육신 장애자보다도 정신 장애자가 많으니까, 그 정신 장애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인간으로서 자유스럽게 살자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내내 지금까지 그렇게 설하고 계시고요. 한 말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또는 한 가지도 자기가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끝 간 데 없이 말입니다. 어저께, 오늘, 내일이 없이, 중간도 없이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잘해 나가신다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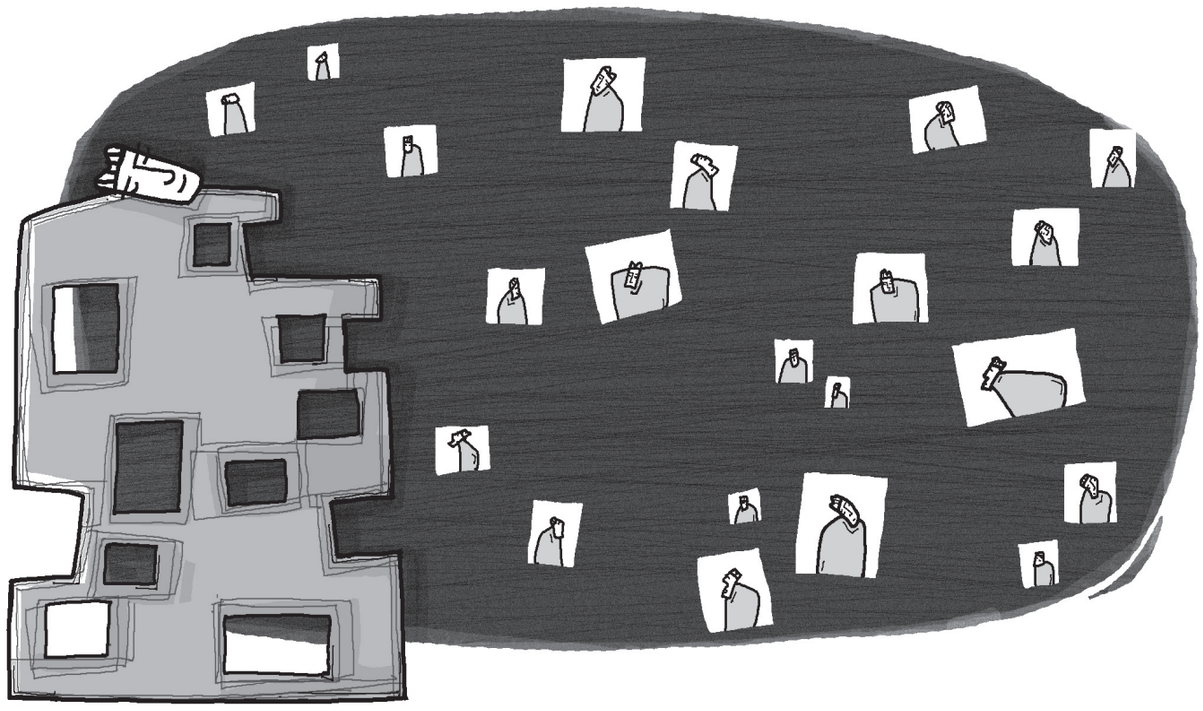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5(남)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질문자6(남) 제 내자가 본원과 대구지원에 한 3년 살다가 지금 그만 납골당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승에 가서라도 산 세상과 같이, 대구·부산·서울 이런 데 모양으로 꼭 만날 수가 있을는지요. 말 한마디도 없이 갔기 때문에 스님께 한 말씀 여쭤 보려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큰스님 인생은 모두가 만났으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났으면 고정되게 그냥 똑같이 또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캠핑 나왔다가 한 철 나는 겁니다. 그렇듯이 구름이 한데 합쳐졌다가 또 그 구름이 증발돼서 비로 내리고, 화해서 비로 내렸다가 또 증발돼서 구름이 되고, 또 비로 내리고 모든 일체 만 중생들이 다 너 나 할 것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다 먹어서 부분이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또 모입니다. 딴 구름하고 모이니까 착을 두지 마십시오. 한 철 같이 친구로서 이렇게 지냈을 뿐이지 거기다가 착을 두진 마십시오.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사님의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다 있는 거고 일체제불의 마음도 일체 조상의 마음도 일체 중생의 마음도 모두 내 한마음에 있다 생각하면 가깝게, 항시 끝 간 데 없이 가깝게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을 두고 멀리 둘로 보지 마십시오.

질문자6(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략)

큰스님 질문 좀 하시라 그랬더니, 뭐 작으나 크나 질문은 질문입니다만, 저 보살님이 나와서 하신 말도 모든 게 근중한 겁니다. 다 버릴 게 없죠. '저렇게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게 있거든요. 하하하. 모두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되는 데서 안 되는 거를 또 알게 되고, 반복해서 돌아가다 보면은 '야, 안 되고 되는 게 없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따져 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지금 수십억의 중생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내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 다스려야, 이게 화해서 나투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모든 안팎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갈 텐데 내 속에 들어 있는 악업 선업의 그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털구멍을 통하고 눈구멍을 통하고 귓구멍을 통해서 온갖 악한 거는 다 몰아오고, 액운은 다 몰아오고 좋은 거는 적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에 바로 이 수십억의 의식들이 다 따라 줍니다. 다스리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기준을 둬서 다 따라 줍니다.

이거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하죠. '숙명통' 하면은 컴퓨터와 같다고. 과거에 모든 업을 지은 것이 바로 현실에 인연에 따라서, 모두 내 몸속에 거듭거듭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발로가 돼서 그냥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그 숙명통 컴퓨터에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나오던 게 그냥 다시 입력을 하니까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바퀴에 닿기만 하면 다 타 버린다고 하면 모두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됐던 그 자체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동짓날 팥죽을 쑤다가 팥죽 끓는 것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했더랍니다. 그와 같이 내 몸뚱이 이 속이 팥죽 솥이라면, 그 팥죽 솥에서 팥죽이 끓지 딴 데서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깐 팥죽 방울이 자꾸 움죽거리니까 바로 법신이거든요. "요것도 법신, 요것도 법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그 수십억의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걸 다스려서 거기다 놓고 돌아가신다면, 살림을 하신다면 모든 입력이 됐던 게 다 무너지면서, 오간지옥도 무너지면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